

2012년 축산정책방향

축산업의 미래

- ① 축산물 수급 안정 : 적정 사육마리수 및 가격수준 유지
- ②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: 친환경·동물복지 축산
- ③ 신성장 동력 창출 : 축산업 선진화 및 외연 확대

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원년 시현

핵심과제

- ①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
- ②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
- ③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
- ④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

일반과제

- ① 사료가격 안정
- ② 낙농산업 발전
- ③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후속조치

미래과제

- ① 축산분야 R&D 효율화
- ② 동물약품 수출 확대
- ③ 밀산업 육성

1.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

한육우

- 농가 조직화·규모화를 통한 브랜드 출하 확대
(’08년 39.3% → ’10년 49.5)
- 거세우 출하일령 단축(30~36개월 → 27개월)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
- 육우 전문브랜드 육성 및 직영판매점, 군납물량 확대

낙농

- 기존축사 시설개보수, 착유시설 교체 등 현대화시설 지원
- 젖소 개량으로 당당 산유량 등 생산성 및 품질향상 도모
- 국내 잉여 원유(약 19만톤)를 저가의 가공원료유로 공급, 유제품 수입 대체

돼지

- 노후화된 축사에 대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확대
*양돈 MSY : (11) 15.2두 → (17)22, 양돈 폐사율 : (11)19.5% → (17)8
- 돼지열병 청정화, 농가별 맞춤형 질병 컨설팅 지원 및 우수 종돈 공급
-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지속 확충, 퇴액비 유통 활성화
*공동자원화시설(누계) : (11)69개소 → (12)95 → (15)150

가금류

- 난계대(卵繼代)전염병, 뉴켄슬병 근절(16년) 및 병아리 이력관리체계 구축(15년)
-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(2월)

2.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

한육우

- ① 쇠고기 수요 확대
- ① 농축협 판매장을 통한 할인판매 지속
- ② 군급식 확대 : 수입쇠고기 전량을 육우로, 돼지고기 3개월 분 소비량의 1/2을 한육우로 대체
- ③ 육우 브랜드 육성, 전문식당 확대(’12년, 3 → 33개소) 및 가공식품 개발
- ④ 소 사육마리수 감축
- ①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: 가임 암소수 기준, 과잉·과소에 따라 차등지급(10~40만원)
- ② 한우 암소 감축 : 2년간 20만마리 감축 목표(수급조절+가축개량 효과)
- 처녀암소 또는 1~2産 젊은 암소 위주로 장려금 지원(’12년 예산 300억원)

돼지고기

- ① 돼지고기(3월까지 7만톤) 및 후보모돈(5천두, 6월까지) 할당관세 운용
- ② 성수기(3~9월)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상장 출하 물량 확보
- 농협중앙회를 통해 20만마리 확보(3~9월)

닭고기

- ① 자동화시스템 설비 확대 지원을 통해 사료효율, 증체량 등 생산성제고

② 성수기 시 계열업체를 통한 비축물량 공급 확대(1월, 7~9월) 및 자조금을 활용, 가격점검 강화('12년 22억원)

③ 대미 삼계탕 등 수출 확대

■ 닭고기 수출연구사업단을 통한 R&D 지원('09~, 건국대)

* 닭고기 수출량 : ('05) 2.5천톤 → ('08) 9.3 → ('10) 16.3

축산물 유통구조 개선

① [주체] 협동조합형 패커(Packer) 육성

* 한우 시장점유율 : ('10) 50천마리(8.3%) → ('12) 120(20%) → ('15) 350(50%)

② [도축] 도축장 구조조정 및 지역별 거점 도축장 육성

■ '15년까지 도축장을 36개 수준으로 감축('08:106 → '11:83 → '12:60)

■ 거점도축장을 도축·가공·유통이 연계된 브랜드 경영체로 육성

③ [도매]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

■ 거점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('15년)

■ 공판장의 부분육 상장 확대 및 부분육 가공시설 증설(767억원)

④ [소매] 대도시 중심 경로간 경쟁을 통한 가격저렴 제거

① (정육점식당) 농협 정육점 식당 확대(농협자금 1,980억원)

* ('11) 141개소 → ('12)179 → ('13)201 → ('14)221

② (정육점) 안심축산물 전문점 프랜차이즈 확대

* ('11)158개소 → ('12)300 → ('13)500 → ('15)1,000

3. 축산관련 제도 개선

축산업 허가제 도입('13.2월)

■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

① '13년(기업농) → '14년(전업농) → '15년(준전업농) → '16년(50㎡이상 농가)

② 신규진입농가 :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

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교재 및 전산시스템 개발(금년 21천명 실시)

축산차량 등록제 도입('12.8월)

■ 농장출입 빈도가 높고 접촉이 많은 시설 출입차량 15,000대 등록

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('12.2월)

■ 사육단계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사환경·사육방식 도입한 농장에 대해 인증, 인증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표시

■ '15년까지 4대 축종(한우·젓소·돼지·닭)으로 단계적으로 확대

농장단위 돼지이력제 도입('13년)

■ 소(쇠고기)와 더불어 돼지(돼지고기)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·관리, 질병 등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('13년에 본격 시행 : 양돈농장 8,000여개 대상)

■ 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(12월 개정안 국회 제출)

4. 사료가격 안정

■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'14년 말까지 연장(8천억원 지원효과)

■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 및 세율 인하

- 품목 확대 : ('11년) 11개 → ('12년) 21

■ 사료업체에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속 지원('12년 600억원)

■ 사료비 절감을 위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추진

- 조사료 재배면적 : ('11년) 260천ha → ('13년) 330(증35%)

5.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후속조치

■ 가축분뇨 특별관리기간 및 특별관리지역 설정·운영

* 대형임시저장조 설치, 기존 공동시설 가동률 제고, 인접 지자체 간 연계처리 등

6. 말산업 육성

■ [전망] 말산업육성법 시행('11.9)으로 말산업 성장기반 마련

■ [인프라] 농어촌형 승마시설 도입 및 특구지정 등 기반마련

■ [인력체계] 말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마련

■ [승마 대중화] 체험활동(7천명 → '16년 1만), 유소년 승마 단 창단(연 1~2개소), 승마대회 개최('12년 415백만원) 등 지원

■ [R&D강화] 말산업 연구소 설치 및 종마법인 설립 추진

7. 축산분야 R&D 효율화

■ 축산업 규모(농림어업 생산액의 40.2% 수준)에 비해 축산분야 R&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 : 9.1% 수준(216억원)

■ 축산분야 R&D 과제는 미래축산포럼에서 선정(창구 단일화)

- IPET, 농진청, 검역검사본부, 생산자단체 연계 강화

본 원고는 '2012년 도축장 경쟁력 강화 세미나' 발표내용에서 발췌되었습니다.

